

# 건축설계의 교육과 실천\*

—이탈리아 두 교수건축가의 사례연구—

金慶洙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1. 건축설계교수의 실무경험

건축설계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포괄적으로 건축계획 전공교수로 분류되어 있고 이 속에는 건축역사나 도시계획은 물론 환경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 교수들이 각자의 분야를 배경으로 건축비평의 언어를 선명히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를 이들 어느 한 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 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게 해주는 임상적 경험이 중요시될 수 밖에 없으며, 설계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이러한 현장경험의 누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수가 건축설계 실무에 참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상의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건축설계사

무소를 열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들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거의 설계실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간헐적인 연구용역의 형태로 건축설계 전과정 중에서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실무와 교육이 서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건축설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실제의 설계경험으로부터 유래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를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건축가가 현장의 경험을 설계교실로 끌어들이 실무와 교육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교수건축가가 존재하는 두 가지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두 존재양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가 하는 문제 등은 이 연구의 초점은 아니다. 건축가의 이론적 탐구와 교육을 통한 심화, 그리고 실제작품을 통한 이론과 실천의 검증과정이 순환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수건축가의 존재양태를 그려내는 것이 이 논문

\* 이 연구는 1990년도 교육부 대학교수 국비 해외 파견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의 목표이다.

이 연구는 1990년 12월 17일부터 1992년 7월 27일까지 교육부의 해외파견 연구교수로 선발되어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에서 체재하면서 관찰한 이탈리아의 두 교수건축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산학협동이라는 대주제 하에 그곳 건축대학의 설계교육방식을 관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이탈리아에 관한 국내자료가 미비하여 세부적인 분석대상은 현지의 사정을 파악해 가면서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건축가들에게 도시라는 주제가 공통적인 바탕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도시건축가의 분석틀로서 그들 사이에 항시 언급되고 있는 유형개념에 주목하였다. 두 건축가의 경우로 분석대상을 압축하여, 과제제시에서부터 최종심사까지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설계교육방식을 분석하였고 작품활동에 관한 자료들도 수집하였다.

관찰대상이 되었던 건축가는 알도 로씨교수와 프랑코 만쿠조 교수이다. 로씨는 지금 이론, 실천 양면에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기치고 있는 건축가로서 우리나라에도 지면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로 이탈리아의 문화적 배경과 도시건축 토론의 맥락이 빠진 채로 일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건축가로 보인다. 만쿠조교수는 팀10의 구성원으로서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지금도 <공간과 사회>라는 잡지를 주관하고 있는 장카를로 데카를로 계열의 건축가로 우리에게 생소한 건축가이다. 210여명의 베네치아건축대 교수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몇몇 건축가들을 빼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다수의 한 사례로서 로씨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았다.

## 2. 교육현장의 비교관찰

두 교수건축가의 설계강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었다. 건축설계교육이 단순히 한두 교수의 강좌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

전공자를 위한 교과과정 구성과 시설 및 교수진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교육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황파악을 위한 이들 자료수집과 관찰은 이 연구의 배경으로서 부분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전체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두 교수건축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곳에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최초의 설계교육현장 참관은 199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방문연구 초청자인 대학총장이 추천했던 만쿠조교수의 강좌를 참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의 협조보다는 몇몇 저명한 건축가 교수들의 강좌를 시험적으로 참관하면서 직접 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종합대학 규모에 해당되는 크기의 학교체제<sup>1)</sup>를 살살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소수의 사례를 통해 전체 윤곽을 추정하고 그러한 구조속에서 이들 사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레고띠교수의 강의도 몇주간 참관하였으나 400명이 넘는 대형강의로서 근접관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

### 1) 베네치아건축대의 현황. (90/91학년도 현재)

• 규모

	등록학생수	'91졸업생수	교수수
건축전공	11,376명	562명	141+21명
도시·지역 계획전공	210명 (한국학생 3명)	12명	48명
	계 11,586명	계 574명	계 210

- 5개학과 : 건축설계과, 건축보수기술과학과, 건축역사학과, 도시학과, 지역사회경제분석학과
- 특수과정 : 개발도상국의 도시계획 및 설계문제(2년)
- 학위후과정: 건축구성, 지역계획, 건축과 도시역사(3년):
  - 국가고시선발
  - 타대학과 영역분담 및 연계
- 에라스무스 : 유럽대학간 학생교환제도(4개월-1년 기간)
- 부설기관 : 통계자료보관소, 지도연구소, 지역정보체계연구소, 건설과학연구소, 사진분석연구소, 복사 및 인쇄소

과목명	건축설계 2D	도시설계 1B
담당교수	알도 로씨(1931년 밀라노 생)	프랑코 만쿠조(1937년 베네치아 생)
개설대상	건축전공 4~5학년(필수과목)	건축전공 4~5학년(필수과목)
교실위치	역사학과동	도시·경제학과동
수강학생수	150명(시작)~80명(최종) (7개조 중 30조시험)	40명(시작)~25명 (14개조 중 9개조 최종 시험)
설계과제	1. 대지선정 : 교수의 설계이론 형성지 이탈리아 북부(빠다나지방)에서 자유선택 2. 주제 : 집단의 공간(대학, 도서관) 3. 조편성 : 2-3인	교수의 현재작업 관련지역 중에서 2곳을 제시하고 그 중 한곳을 선택 주거단지 2~3인

표1 비교관찰대상 강좌개요

라서 로씨, 만쿠조 두 교수의 강좌로 국한하였다. 각 강좌의 개요는 <표1>과 같다.

### 3. 강의진행 방식의 차이

#### (1) 설계과제 제시

우선 설계과제가 주어지는 과정에서 두 교실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로씨의 교실에서는 이탈리아 북부의 빠다나 지방<sup>2)</sup>을 권장했을 뿐 다양한 대지를 학생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베네치아는 물론 비첸차, 빠도바, 베로나, 라벤나, 남단의 바리까지 여러 곳의 설계대상지가 등장하였다. 장소성과 공공건축물의 기념성을 강조하는 이 교실에서 다양한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도교수의 자신감과 함께 거꾸로 학생들의 연구 과정을 통해 교수 자신의 생각을 넓혀 간다는 의도도 있다. 외국학생들에게는 출신국의 대상지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격려했다.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 뿐 아니라 터키 등지의 외국인학생들도 상당수 수강하였으나 실제로 출신국의 대상지를 선택한 경우는 없었

2) 빠다나(Padana)지방 : 이탈리아 북서부 밀라노, 파르마로부터 페라라, 만토바 등을 포함하는 알프스 이남 지역. 포강 유역의 평야지역으로 군사적 목적의 벽이 중요하였고 벽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불규칙한 형상의 중세광장과 정형의 르네상스식 건물들이 주된 건축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다. 여하튼 여러 곳의 대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로씨의 설계이론이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리주의라는 그의 이념과 설계접근 방식이 이성의 보편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쿠조의 교실에서는 현재 교수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다루고 있는 베네토 지방의 두 장소를 대상지로 제시하였다. 그 자신이 도시설계를 담당하였던 로베레토라는 소규모 도시와 비첸차 근교의 아르지냐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지명 설계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도시설계 과목이기는 하나 대부분 건축전공 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였고 대지의 규모도 로씨교실의 것에 비해 크지 않았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모가 좀더 작은 아르지냐노를 선택하였고 2-3인으로 구성된 14개조 중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여 학점을 받은 학생은 9개조였다.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대상지 주변의 기존 현황분석과 섬세한 관찰을 강조하였으나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에 흡족하게 호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교수도 몇 차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하였다.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수집을 통해 귀납적으로 건축설계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한다는 자세는 이 교수의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건축가 개인의 주관이나 이론적 체계를 앞세운 판단보다는 겸허하게 현실 그 자체가 제시하는 것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2) 전반부 이론강의와 중간점검

로씨는 그의 조교수들을 통해 1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9회에 걸쳐 이론강의를 진행시켰다. 로씨 자신은 이 기간 중 단지 3회 출강하였을 뿐이며 그것도 몇번씩 출강약속을 연기시킴으로써 그의 강의를 수강하려고 참석했던 다수의 청강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시대 건축가들의 이론과 사례들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주면서 몇몇 이론가의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공공 건물, 공간개념, 기억, 장소, 빛, 자연, 언어, 양식과 용도간의 불일치 등을 주제로 한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주로 블롱들, 보프랑, 뒤랑, 불레, 르두 등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밀라노의 건축사를 별도로 한 시간 강의하면서 아돌프 로스와 그에게 배운 데 피네티(De Finetti)의 작품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탈리아 근대건축의 뿌리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례제시 이후에 설계작업에서 장소개념, 아이디어의 의의, 의미탐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도서관의 개념, 사례 등 차츰 설계과제에 관련된 논의로 방향을 잡아나갔다. 로씨 자신은 '설계와 구성'의 개념 차이, 일본에 지어진 일팔라조 호텔 등 최근의 작업들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적 개념들, 자신의 생각이나 착상을 보여주는 스케치,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갖는 자신의 느낌 등을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받음으로써 이 교수건축가가 건축설계에 임하는 방식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선례선택의 방법을 답습해 봄으로써 로씨가 이론 문화적 업적을 좀더 깊게 경험하도록 지도받는다. 철저하게 로씨식으로 건축을 접근해 보는 것이 이 교실의 교육방침이었고 그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외국학생들이 중도 탈락되어 갔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 현대건축의 유행적 영향이 강한 곳에서 온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라파엘 모네오의 미니멀리스트적인 구성이나 램쿨하스 등의 영향을 보여 주었으나 로씨는 '그런 세계가 의미 있을지는 모르나 나의 세계는 아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거부하였다. 그런 세계에 동조한다면 그런 건축가들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교실에서는 유기주의건축이 보여주는 부정형

배치나, 선례나 기존 맥락에 관계없이 정면을 추상적으로 설계하는 것 등은 금기로 여겼다.

만쿠조는 로씨에 비해 이론강의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도시설계의 이론 과목이 두 명의 조교수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론보다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설계대상자인 두 곳을 학생들과 함께 방문하여 현지의 도시계획 및 건축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 과정과 문제점 등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현장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존건물들을 가리키며 '아름답다', '보존할 만하다'는 등의 말로써 자신의 가치판단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보였다. 후에 그가 학생들에게 배부한 그의 논문 "도시설계의 실제"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에게는 비교적 선명한 관점들이었으나 학생들은 로씨교실과는 달리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설계진행 중반까지 상당한 개념상의 혼동들을 보여주었다. 사례 겸 설계진행방법의 모범으로 소개된 만쿠조의 스승 데카틀로의 마쵸르보 집합주거(베네치아에 딸린 부라노 섬의 한 지역)도 설계방법에 대한 관념을 얻기에 충분한 사례였으나 학생들은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법이나 사례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로씨의 교실쪽이 학점을 받기에 훨씬 더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수강생들의 능력이나 의욕에서 두 교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만쿠조 지도교실은 설계진행 과정도 그만큼 느렸다. 조교수 중 한 사람에 의하면,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중반 이후에는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며 모든 학생들은 다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였다. 수강학생수가 적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 더욱 그러하였지만 로씨의 교실과는 달리 만쿠조 교수가 매시간 개별적으로 각 조별로 점검해 줌으로써 강좌담당 정교수와의 접촉빈도는 훨씬 높았다. 합리주의적인 이론들이 갖는 체계성이 거부되고 매 과제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강조되었다. 교수와의 직접 접촉이 지속됨으로써 로씨의 교실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교육 형태를 보여 주었으며, 이 점을 중요시하고 만쿠

조교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로씨교실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하학적인 대칭체계라든가 직선축 설정 등이 교실에서는 첫번째 급기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교수들은 로씨교실을 거쳐 나온 학생들이 보여주는 로씨풍의 설계방법을 교정하는 데 힘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3) 학년말 최종평가

1992년 7월 2일 로씨교실에서 이루어진 최종평가에는 시험을 신청한 70개조 중 30개조를 대상으로 종일 진행되었다. 이미 다수의 학생들이 중간과정에서 걸려진 상태였으므로 로씨가 각 학생의 작품을 단독으로 평가하고 조교수들은 단지 보조하는 역할만 하였다. 한 조당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작품들도 합격점수를 얻었다. 직경 40여m의 원형 평면을 구조의 고려없이 지붕을 그려 놓은 작품이나, 시대착오적인 복고적 형태들을 절충주의적으로 나열한 작품 등이 그러한 사례였고, 전반적으로 로씨의 아류로 머문 작품들이 다수였다. 30점 만점에 우등으로 평가받은 학생들의 경우(그림1)는 앞으로 로씨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재능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스스로도 로씨교실은 교육과정 중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각자 자신들의 건축을 찾을 것이라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한편 중간과정에서 조교수의 인정을 받으며 이탈리아 학생들보다 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던 터키 출신 건축가는, 최종단계에서 로씨의

견해와 조교수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몇가지 대안 중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좌절하였다. 결국 연말의 2차시험으로 응시를 미루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림2) 조교수들이 로씨를 대신하여 중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완벽하게 로씨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의 통상적 교육관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결국 소수의 학생들을 일정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이라는 부정적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각자 이렇게 자신의 주관을 펼칠수 있는 교육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가치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풍토는 이 대규모 건축대학의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7월 6일의 만쿠조 설계강좌시험은 최종적으로 9개조가 응시하였다. 만쿠조를 비롯한 2인 조교수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작품을 최종설명하면서 교수들과 토의를 계속하였으며 조당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토의가 끝나고 각 조의 모형과 학생수첩을 책상 위에 나열해 놓고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 대기시킨 후 3인의 교수들은 평점을 시작하였다. 한 조교수의 주장에 따라 먼저 각 작품을 평가하고 나서 5년간 학점을 받은 기록이 적힌 학생수첩을 참조하기로 하였다. 만쿠조는 젊은 조교수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협의하여 점수를 매겼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3인의 의견이 더 객관성이 있다는 자세였으며 로씨교실에서처럼 평점에 대해 조교수가 거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식의 카리스마적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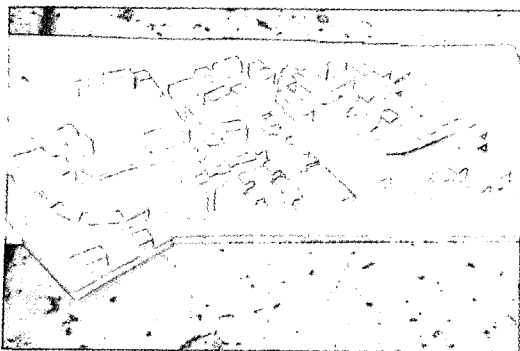


그림1 로씨교실 학생작품 : 이탈리아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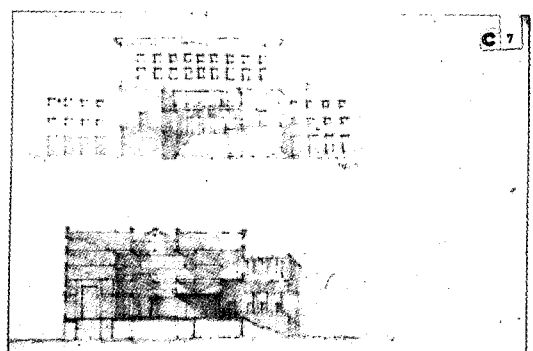


그림2 로씨교실 학생작품 : 터키 출신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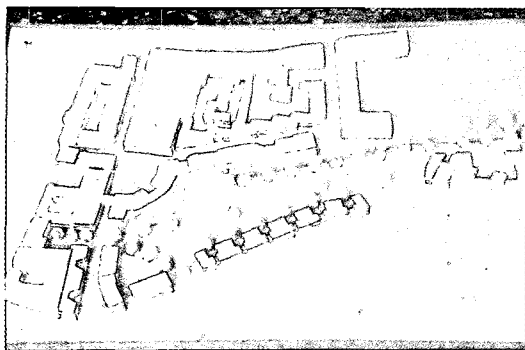


그림3 만쿠조교실 학생작품 : 일본의 건축가

위기는 전혀 없었다. 최종 제출한 작품속에서 각 학생이 자신의 어휘를 찾아 그려낸다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으로 보였고 이번 학년에는 두드러지는 학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교수들도 시인하였다. 후미코 마키와 설계경험을 쌓은 일본의 건축가로서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그림3)은 이탈리아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감성을 보여주는 작품(그림4)을 만들었으며 교수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로씨의 교실과는 매우 대조되는 교실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를 찾아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그들의 주장이 확인되는 사례였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학생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격려된다는 것은 교실의 분위기가 훨씬 더 민주적임을 나타낸다. 물론 건축가의 직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어느 교실이 더 교육적인가를 판정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 4. 이론화작업 비교

##### (1) 이탈리아 건축유형학의 배경

전통적으로 지식인 대접을 받아온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은 항상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기초할 때에만 이론적 작업이든 실천적 작업이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탈리아가 국제어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크지만, 이런 배경이 빠진 채로 이해됨으로써 개개 건축가는 물론 그들의 저술활동, 이론형성 과정 등이 왜곡전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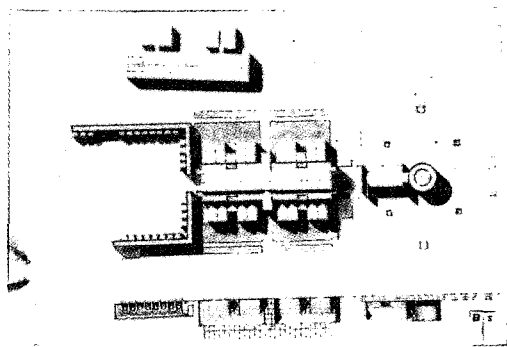


그림4 만쿠조교실 학생작품 : 이탈리아 학생

고 한다.<sup>3)</sup> 경험론적 전통이 우세한 영미의 환경에서 대륙의 문화전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접근마저 언어의 장벽에 걸려 단순화되며 피상적인 유행으로 전해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반디니는 유형학논의가 영어권에서 그 깊이를 잃어버리고 규약(또는 관습: convention)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됨으로써 탈근대건축을 지원하는 이론으로도 한 몫을 했던 것도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영어권 논문들의 이런 한계에 유의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현대건축의 배경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두 교수건축가가 이론을 형성시켜가는 작업을 살펴보려 한다.

이탈리아의 현대건축가들은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적 이상도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역사도시의 연구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예술사가 아르강의 유형이론은 이 때의 이탈리아 건축가들에게 기본개념을 제공해 주었다. 파프르메르 드쟁시의 모호성과 생성력을 중심으로 한 유형개념을 받아들인 아르강의 유형개념에서는 유형이 있기 위해 필요한 사례들 속에서 기능적, 형식적 유추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렇게 파악된 유형들은 무한한 형식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유형자체 내부에서도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4)</sup> 아르강의 유형개

3) Bandini, Micha, "Typology as a Form of Convention", <AA Files>, #6,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1984. 5., 73-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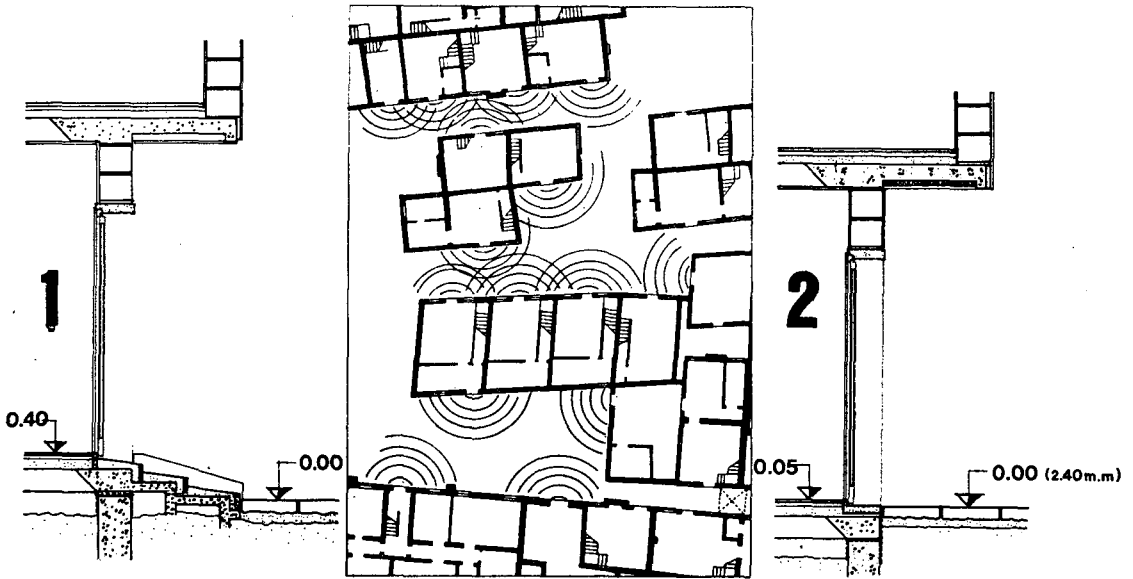


그림6 외부공간 활성화방법

산업발전에 따라 폐기된 공장지대를 기존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실현시켜가고 있는 만쿠조는 그러한 산업고고학(archeologia industriale)적 연구<sup>8)</sup>를 이 유형학의 개념과 연결시켜 작업해 가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한 그의 논문에서는 다원적이고 복잡한 도시맥락을 분석하고 그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계과정을 정의하고 있다. “부적절하지 않은 일을 몇가지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축가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계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sup>9)</sup>

- ① 기존 환경의 물리적 맥락에 맞춘다.
- ② 형식주의자들이 즐겨쓰는 기하학적 단순구성을 피하라.
- ③ 작은 요소들 모두 설계의 중요인자로 여길 것.
- ④ 설계안을, 각 요소들이 섬세하게 얽혀있는 직물처럼 여길 것.

8) Mancuso, Franco, “Il veneto dell’ archeologia industriale”, 《Archeologia industriale》

9) Mancuso, Franco, “La pratica del disegno urbano”, 《Urbanistica》, #95, 1989. 6.

- ⑤ 고립된 건물이 아니라 공간, 기능, 물리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⑥ 공공의 공간을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길과 광장의 역할을 되살릴 것.
- ⑦ 고밀도는 과밀과는 다르므로 도시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것.
- ⑧ 지어져 있는 것들은 장래의 재사용을 고려하여 전면손질을 하지말고 남긴다.
- ⑨ 동선계획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 것.
- ⑩ 기술자체를 설계의 한 성분으로 생각하고 적극 도입한다.

이들 항목 중 특히 1, 2, 5, 6, 8 등이 소극적 개입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만쿠조류 건축가들의 유형학에 대한 자세를 보여준다. 맥락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1항 관하여 로씨의 경우에는 ‘맞추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선별한 기존 유형을 새롭게 조합하여 기념성을 주려 할 것이다. 기본 건축환경으로부터 재창조가 가능한 유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두 교수 모두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전위적 실험가들은 아니다. 뒤랑의 이론을 이어 받아 직교격자와 축이 건축구성에서 기본적인 인자로 되어 있는 로씨의 이론과는 가장 두드러지게



대립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2항에서이다.

(3) 합리주의자들의 유형학 접근

1970년대 초반에 아이모니노와 로씨를 주축으로 베네치아건축대에서 구성되었던 “건축그룹(Groupo Architettura)”이 수년간 추구한 연구주제도 바로 도시형태론과 건물유형론의 문제였다. 모델의 창조, 모델의 법칙(유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건축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로씨의 자세<sup>10)</sup>는 모든 건축작품이 유형의 지위를 겨냥한다는 아르강의 명제를 받아들이고 있다.<sup>11)</sup> 과거 그 자체는 정지되어 있으며, 당대의 예술가는 주어진 객관적 요구에 대해 최적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단계상에서 점진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형식적 해결을 추구하며 그것이 바로 유형이 재창조되는 과정이라고 한다.<sup>12)</sup> 파프르메르를 단서로 하였으나 아르강은 유형을 분류체계를 위한 개념을 넘어 창조적 활용이 가능한 분석기준의 지위로 올려놓았다. 건축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창작에도 살려 쓸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등장하게 한 것이다. 로씨가 도시형태의 분석도구로서 유형학에 관심을 더 가진 데 반해, 아이모니노는 도시형태와 건물유형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면서 형식보다는 기능쪽에 비중을 더 두으로써 근대건축과 이탈리아의 초기 근대건축가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도시와 역사 및 기념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탐구해 온 로씨는 1970년대에는 집단기억의 장소로서 도시를 파악하여 “유추적 도시”의 개념<sup>13)</sup>을 착상하였고 자신의 작품들의 단편을 조합한 도면(1976) (그림7)으로 제시하였다. 콜린 로우가 이상도시 구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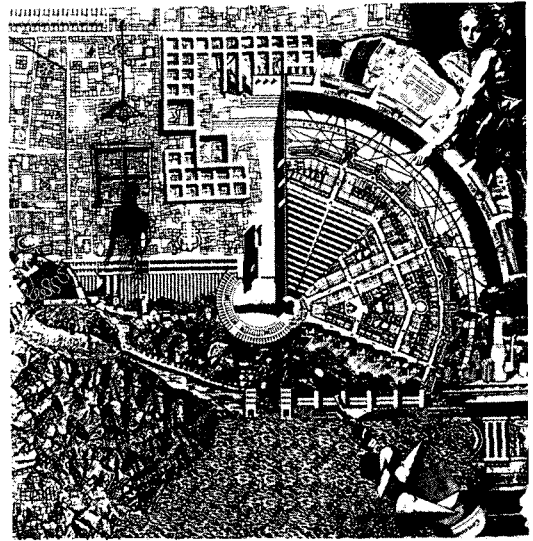


그림7 유추적 '도시'(알도 로씨, 1976)

플라주르로 규정한 현대도시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명료하게 제시된 유추적 도시의 개념에 비하면 그러한 유추를 정당화해 줄 인식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유형학은 그의 의도만큼 그리 선명하게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부분에서 그의 서술은 순환성을 띠고 있어 명료한 정의로 제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형학이란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작동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념이다”라는 식의 개념규정은 그의 유형학의 개념을 선명하게 해 주지 않는다.<sup>14)</sup> 로씨의 건축적 바탕을 ‘제3의 유형학’으로 규정한 비틀러는, 그 특징을 도시를 전체로 파악하는 자세, 그 속에서 한 단편을 선택하며, 그 단편의 의미를 확장시켜 가는 작용-원래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 단편 자체의 의미, 새 맥락에서의 의미-으로 해설하고 있다.<sup>15)</sup>

로씨의 교실에서 이루어진 전반부 이론강의 중

10) Rossi, Aldo <Scritti scelti sull'architettura e la città : 1956-1972>, CLUP, 1975(1966), 303쪽

11) Argan, 앞글, 78쪽

12) Bandini, Micha, 앞글, 75쪽

13) Rossi, Aldo, “An Analogical Architecture”, <Aldo Rossi>, Architectural Design, 1983, 59-64쪽

14) Rossi, Aldo, <L'Architettura della città>, Città Studi, 1987, 30쪽, 영역,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Oppositions Books, MIT Press, 1982, 41쪽

15) Vidler, Anthony,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s #7, 1976. 7., MIT Press

작품명	토리시장 Centro Commerciale "Centro Torri"	살치시장 Centro Commerciale "Area ex Fornaci Salci"
설계 위치 규모 기능 특징	알도 로씨 밀라노 남쪽 소도시 빠르마 연면적 18,000m <sup>2</sup> 수퍼마켓, 하이퍼마켓, 부대시설, 점포 10개의 탑(20-24m 높이)	프랑코 만쿠조 리미니 근교 소도시 산타르칸젤로 연면적 3,750m <sup>2</sup> (1단계) 수퍼마켓, 부대시설, 바, 약국, 점포 나무모양 6기둥이 있는 아케이드

표2 비교대상 작품개요

에 제시되었던 블레나 르두, 로스 등의 사례는 신헌리주의 건축가들과 함께 그가 계몽주의 시대의 작업, 특히 도시건축 구상의 선명성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사례들을 분류하는 체계를 찾는 것은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래 프랑스건축학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일이다. 공과대학 교수였던 뒤랑이 역사가 르그랑과 함께 저술했던 <세계건축 비교도집><sup>16)</sup>은 축과 격자에 의한 건축구성의 원리를 통해 로씨에게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공공의 장소가 요구하는 집단의 역사 경험에 대한 기념성을 그는 몇가지 원초적인 형태들을 반복하면서 실현시켜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작품의 수가 급격히 늘어 그러한 어휘반복의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를 매너리즘에 빠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때로는 상업자본이 그의 개성적 양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탈리아 문화취미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방에 일종의 문화적인 선전탑처럼 강렬한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후진건축가들 중에는 그의 이러한 상태를 창조적 활력의 정체로 판단하는 이도 있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이 집단의 기억과 공명하여 보편성을 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선택한 도시 건축이라는 주제의 문화적 가치를 확신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설계의뢰를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로씨의 상황이다.

구조적 유사성에 의한 특성분류의 기본이 유형이라할 때, 그 유사성을 판단하는 근거에서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경험적인 입장에서서는 경우 유사성은 좀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 기대게 되지만, 로씨처럼 유추라는 단서를 통할 때는 주관적, 직관적 판단이 전면에 두드러진다. 로씨도 처음부터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서 유형을 보면서 도시건축학의 과학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문화과학의 특성상 실증과학의 형태로 도시건축의 이론이 정립될 수는 없다. 로씨도 객관적 과학의 수립보다는 문화적 의미의 차원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주관적 창조의 세계에 더욱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만쿠조의 경우는 그러한 주관성을 최대한 피하려 하며 기존 도시의 맥락이 갖는 기능, 공간 형태상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을 유형학적 탐구의 과제로 삼고 있다. 로씨계열의 신헌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적 도시이론, 특히 지역지구제를 비판하면서 출발하였지만, 기존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법에서도 로씨식의 기념성이 아닌 범상한 듯한 구성과 작은 것들을 통한 건축적 즐거움의 추구에서 섬세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 5. 실제 작품을 통해 본 실무양태 비교

두 교수건축가의 실제 작품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두 사람 모두 작품활동과 이론적 신념 사이에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두 개의 사례

16) Durand, J. N. L., <Recueil et Parallele des Edifices de Tout Genre, Anciens et Modernes>, Paris,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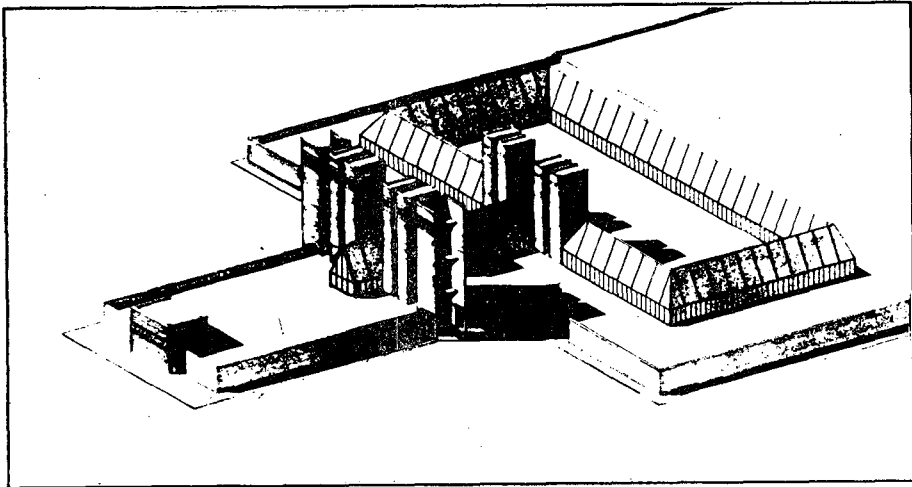


그림8 토리시장. 조감도

를 통해서도 이들의 설계철학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작품은 이탈리아의 TETRAKTIS라는 재단에서 1991년도에 선정한 우수 상업건축 중 나란히 최고상을 받았다.

(1) 토리시장(Centro Torri)

상업건축으로서 흔히 지어지고 있는 밋밋한 창고모양의 슈퍼마켓 유형을 벗어나 지역생활의 중심으로서 과거의 시장들처럼 활기찬 장소로 설계 개념을 설정하였다. 로씨는 이 시장을 그 주변에 새로운 활동들이 일어나고 밤에도 열려있어 빛과 음악을 들려주는 한 조각의 도시로 해석하였다. 단순한 상업기능을 넘어 전통적으로 도시의 시장이 갖는 의미와 상징을 되살려 선명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인간에게 관련된 물건들(양식, 실용품들, 옷 등)을 보게되는 장소는 축제와 만남의 장소이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기능의 건물이 현대도시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제가 된다. 빠르마의 이 시장에는 르네상스 도시에 큰 건물들이 솟아있듯이 벽돌벽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탑이 솟아있다. (그림8) 시장과 상인들과 사람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높이 솟아 있는 것이다.”<sup>17)</sup>

17) Braghieri, Gianni 편, <Aldo Rossi>, Zanichelli,

그의 파트너 잔니 브라기에리는 이 시장건물이 근거하고 있는 유형으로 로마시대의 마첼룸(macellum)을 든다. 고기를 파는 시장이라는 어원을 가졌던 이 유형은 광장이나 갈레리아(또는 가게길)를 갖는 유럽 시장의 오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베로나의 에르베(야채) 광장, 빠도바의 에르베와 프루타(야채와 과일) 광장을 비롯하여 베네치아의 잠화상 골목 등 수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 미국의 80년대 수많은 슈퍼마켓들처럼 철저하게 광고만으로 뒤덮힌 상업건물들이나 유럽의 상업건물들에서 보이는 철저한 익명성의 경향을 깨뜨리고 적절한 재료와 유형학을 통해 상업건물을 건축작품으로 올려 놓은 최초의 예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sup>18)</sup>

이 시장은 갈레리아로 연결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벽돌탑이 눈에 띄게 처리되어 입구와 주동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9) 거의 전체를 단층구조로 하면서 하이퍼마켓 둘레에 필요한 사무실과 지원시설들을 배치했다. 10개의 벽돌탑 상부는 코니스 모양으로 처리하고 그 밑에

Bologna, 1989, 188-191쪽

18) Braghieri, Gianni, “Il macellum”, <Premio Nazionale TERCAS Architettura 1990/91>, Fondazione Tetraktis, Teramo, 1991, 1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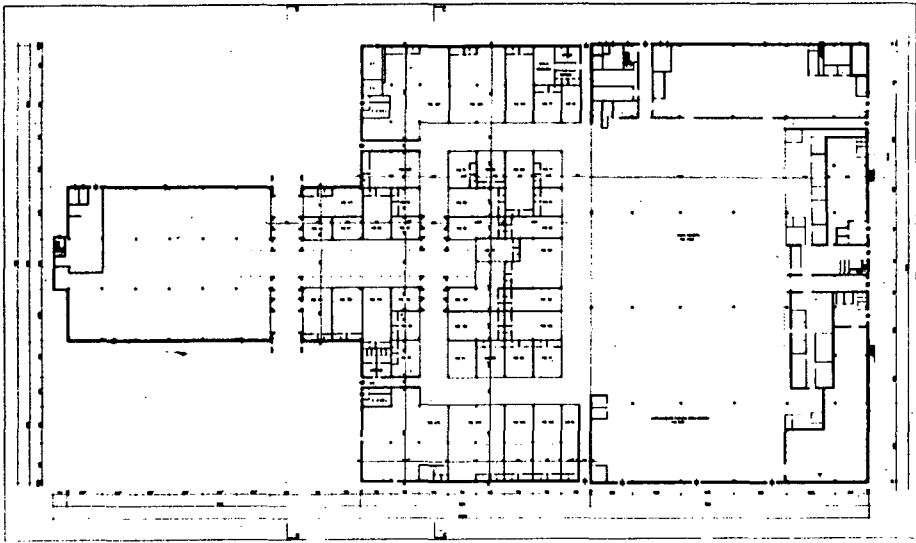


그림9 토리시장, 평면도

타일로 띠를 두르고 “탑 시장(CENTRO TORRI)”이라는 이름을 반복하여 새겨 넣음으로써 탑 그 자체의 의미를 강조했다. 탑 윗쪽에 “탑 시장”이라고 새긴 것은 마치 공공건물처럼 도시의 한 지점으로서 강한 위치 표시가 된다. 빠다나 평원의 풍경 속에서 고속도로 쪽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안개가 많은 이 지역의 기후로 인해 마치 등대처럼 이 높은 탑들도 전망대이면서 동시에 전망되는 대상이며 풍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sup>19)</sup> 입구는 한 면이 터진 탑을 양쪽에 하나씩 두었고 광고판이나 현수막이 걸릴 자리로 계획되었다. 탑과 사무실, 슈퍼마켓 쪽의 모래쉬인 벽돌부분은 초록색 칠한 H형강 아크트레이브, 창과 문에는 철근콘크리트로 아크트레이브를 만들어 구분하였다.

로씨는 한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때로는 과장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을 강조한다. 물론 그러한 단편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건축가 개인의 주관

에 의한 것이다. 그 단편이 원래 장소에서 가졌던 의미는 다만 어렴풋한 연상작용만을 일으키며 건축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장소의 이미지 속에 중첩된다. 강렬한 개성을 발휘하여 강한 인상과 함께 선명하게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다. 선명한 각인을 보는 이에게 남김으로써 분명한 하나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로씨의 목표이고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만장의 벽돌을 사용하여 탑과 외벽을 만들었다는 이 건물은 상품 구매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생활의 장을 신전의 경지로 올려 표현하였다. 이런 매락변환의 조작은 매너리스트적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가 즐겨 발표하는 스케치에서도 이러한 개성은 선명하다. 주로 외관 이미지에 대한 스케치가 많고 선이 강하며, 아름다움 보다는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초기 스케치에서부터 최종 완성안까지 겪는 변화가 적다. 기능이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그의 신념이 그러한 방법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형식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긴 회랑으로 둘러싸인 직각체계의 공간구성과, 거의 항상 도입되고 있는 대칭적인 배치는 이 작품에서도 고수되고 있다.

19) Rossi, Aldo, “Le Torri di Parma”, <Premio Nazionale TERCAS Architettura 1990/91>, Fondazione Tetraktis, Teramo, 1991, 16-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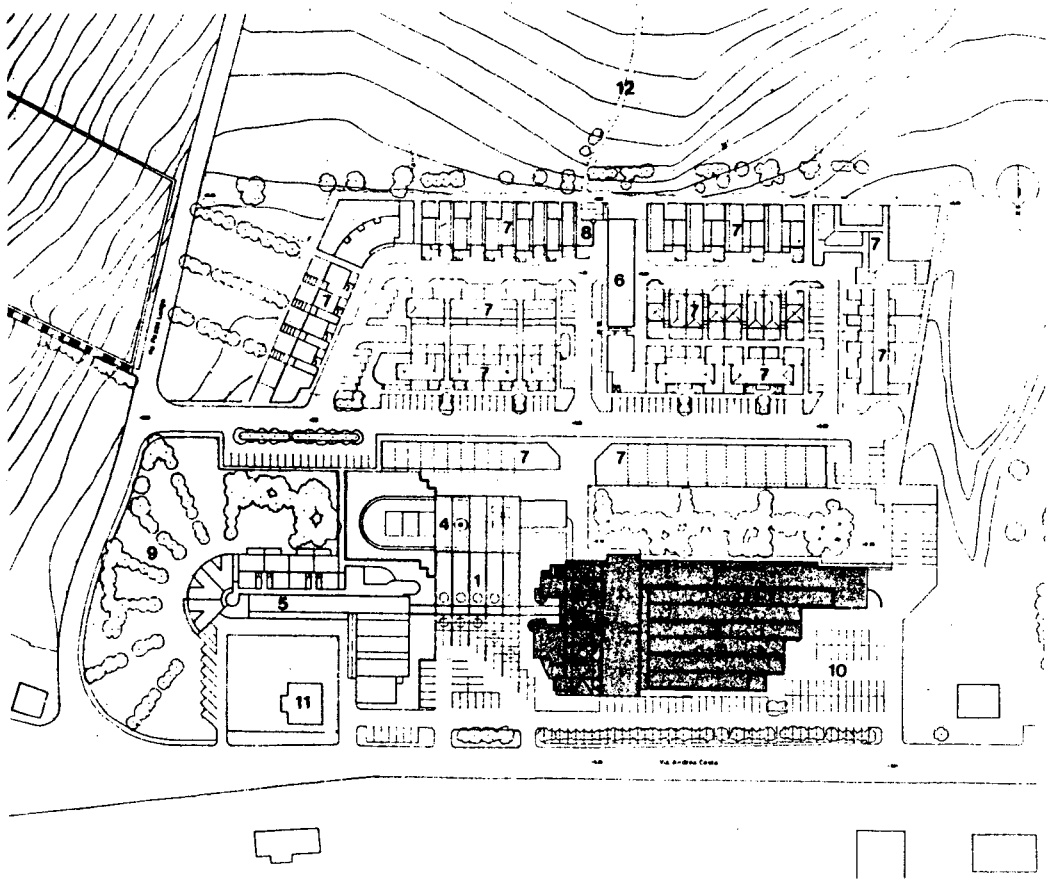


그림10 살치시장, 배치도

(2) 살치 시장(Area ex Fornaci Salci)

이 건물은 포르나치 살치 지역의 벽돌공장 재개발과제로서 시장건물의 일부가 완성되었다. 공장과 그 주변의 땅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뒤에 둔 주거단지와 중심상업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의 한 부분이다. 공원으로 연결되는 중심축을 상가로 관통시키면서 그 부분을 아케이드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건물들을 배치하였고, 기존의 굴퓌를 그 광장의 시각적 초점으로 삼았다. (그림10) 새 건물들은 그 대지에 원래 있었던 건물들의 배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고, 동시에 구릉 위 중세시대 구도시와도 호응하도록 하고 있다. 아케이드 윗층에서 벽돌가마 부분으로 연결하는 다리는 주변의 파노라마를 느끼게 해 줄 장치이다. 외곽경계선의 곡선

처리, 지붕모양, 전통재료 사용 등 기존 주변의 환경과 유사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유형과 높이의 건물들을 통해 볼륨이나 배치에도 변화를 주었다. 내외부로 계단이 나 있는 아케이드는 개방되어 있어 외부공간들을 연결한다. 광장 서쪽은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광장들처럼 바, 구멍가게, 공중전화, 약국 등 작은 가게들을 두기 위해 단위면적이 작게 설정되어 있다.

아케이드는 기존의 상업건축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대칭 아치라든가, 뾰족한 코니스처리,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얇고 쉬고 만나고 들여다보거나 내려다보는 등 행태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으로, 실제의 거리로 구성하면서 공원과 기존 도시를 연결하려 하였다. 새 단지와 구도시 사이의 시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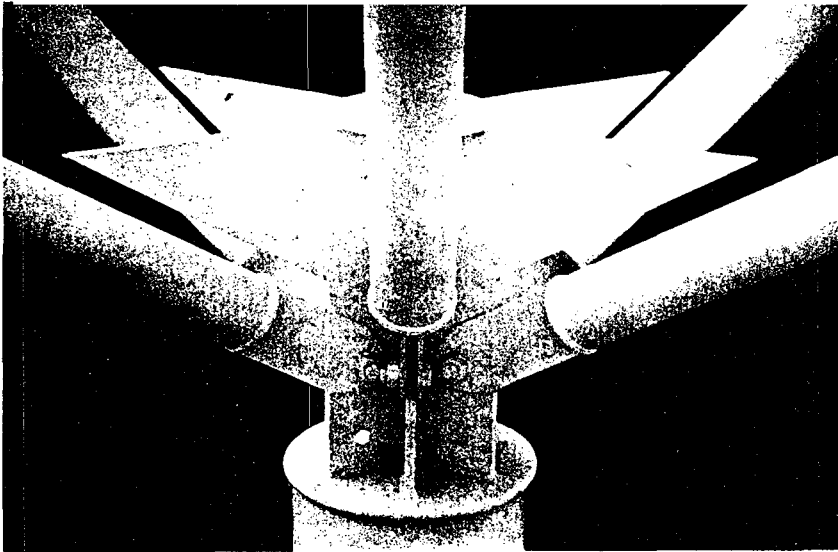


그림11 살치시장, 철제 주두

연결장치들을 두고 있다. 새건물의 부피와 높이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그 사이에 공원이나 정원을 뚫으므로 새로운 길 사이로 구도시가 보이도록 하는 한편 건물과 지붕의 모양을 언덕에서 내려다 볼 때의 풍경도 고려하여 건물의 지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자립구조의 6개 기둥을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에 빛을 투과하는 반투명 플라스틱 관을 얹어 아케이드를 덮었다. 그 두 요소 사이를 6날로 구성된 철제 주두(그림11)와 각도를 서로 달리하는 가새들을 4개씩 연결시켜 지붕전체를 하나로 지지하고 있다. 풍력에 의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 작은 규모이나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케이드의 두 면은 입면을 서로 다르게 하였고 단면도 비대칭이 되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덜고 있다. 광장으로 면한 쪽은 건물의 트인 부분과 테라스 등으로 요철이 많으며 공적·사적 공간 사이의 상호관입을 가능케 한다. 작가는 이를 광장의 기본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물의 재료, 띠부분의 색깔, 조립관 부분의 변화와 통일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하고 있으며 구도시의 벽돌건물들과 색깔, 재료를 맞추어 갈색과 황토색을 주조로 하는 자연재료를 택했다.<sup>20)</sup>

만쿠조는 여러 가지 작은 유형들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주려 하였다. 이 건물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들의 연속으로 감각된다. 중심축을 설정하되 대칭을 피하였고, 동선을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의 위계도 고려하나 서로 관입하면서 각자의 공간성격을 강화한다. 그러나 이 모든 설계수법이 선행하는 이론의 틀 속에서 추출되어 대지 위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내력을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로 발견한 것들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는 점이 로씨와는 크게 다르다. 기존도시의 역사와 대지 주변 환경의 세부적인 특징들에 상응하고 조화되도록 끊임없이 세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자세이다. 건물을 그 땅에 배치하는 자세나 건물의 모양을 만드는 일 모두 주관보다는 기존의 평범한 질서를 따르려 한다. 불필요하게 건물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모서리를 자르거나 안으로 물려 앉힌다. 스케치의 내용에서도 건물 전체의 이미지 보

20) Mancuso, Franco, "Dalla ciminiera alla galleria", 《spazio e societa》, 55권, 1991. 7/8월, 56-67쪽

의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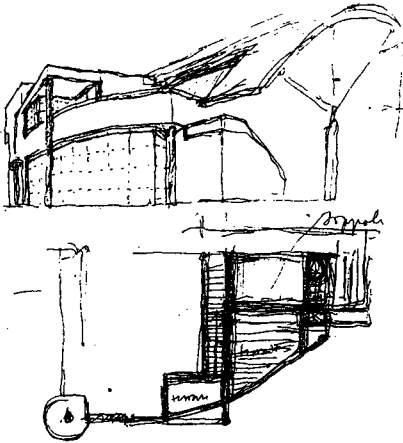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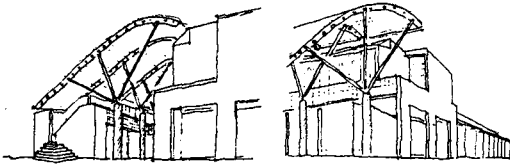


그림12 살치시장, 스케치

다는 부분의 처리를 연구한 흔적이 더 많다. (그림 12)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대지, 과제 조건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설계행위를 지속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와 재료와 공법에 대한 연구와 세부처리에서 이러한 자세는 지속되고 있다.

## 6. 합리성의 기준 문제와 일관성

건축역사를 유형학적 연구를 통해 건축과 도시의 관계로 파악하고 그것을 건축설계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초점으로 하여 이탈리아의 두 교수건축가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극히 대조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거의 가까와질 수 없는 건축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건축가들이 세계와 건축을 대하는 두 극단의 기본자세인 합리주의와 경험주

스스로 합리주의자임을 내세우는 로씨의 경우, 논리의 명증성을 추구하고 건축에서도 구성상의 명료성을 중시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론적 노력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명쾌한 과학으로서 도시건축의 이론을 시도하였다. 그의 <도시의 건축>은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서 전세계 건축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처음부터 그는 경향성을 전제하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물론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유추라는 인간능력이 그가 초기에 의도했던 도시건축의 “과학”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연과학과는 구분되는 인문학으로서 건축지식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으며, 유추적 도시, 기억과 단편들, 도시에서의 기념성 문제 등을 환기시켜 건축의 문화적 차원을 확장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험리주의 건축가들처럼 한 집단으로서 선명한 이론을 제시하거나 건축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중시하고 기존 맥락의 규칙성을 존중하려는 만쿠조의 경우는 로씨와 비교할 때 경험주의적 성격이 부각된다. 합리론적 이성이 꾸며놓는 독단적 체계를 믿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되도록 넓게 포용하겠다는 자세가 바탕에 깔려 있다. 건축구성에서도 무리한 시도를 삼가며 앞에서 보았듯이 되도록 작은 규모의 구조와 공간을 배열하려 애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합리”의 개념은 오히려 이런 자세를 가리키고 있으며 건축지식에 대한 논쟁에서 많은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예술개념과 예술가에 대한 대우는 소수의 ‘별’들을 탄생시키고 그들 ‘위대한 개인’의 주변에 하나의 예술계를 구성하는 체계를 갖고 있

21) Broadbent, (Design in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Ltd., 1973, 58-62쪽

다. 개인을 창조의 시발로 보고 존중하는 전통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에서도 작용하여 로씨와 같이 독특한 도시이해 방식을 평가하고 때로는 신화적인 위치에까지 올려 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들 이면에 더욱 많은 건축가들이 만쿠조와 같이 구체적 현실과 대면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주의적 다수가 현실을 이해하고 처방해 나가는 행위들이 더욱 넓은 서구도시의 문명을 만들고 있으며, 상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면의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들 두 교수건축가의 교육과 이론 및 그 실천 사이의 여러 활동들을 관찰 분석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은 논리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합리주의 자건 경험주의자건 각자의 논리와 세계관을 유지

해 가면서 그것을 학생지도에서부터 자신들의 작품활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성은 치열한 건축논쟁 자체를 불식시켜버리는 어설픈 다원론이나 상대주의에 비해 가치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원론이 다양한 가능성을 포용하려는 개방적인 정신을 표방하며, 확일과 통제가 지배하는 사회체제 아래 횡행하는 독선을 막아주는 민주적 자세의 기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원론에 대한 믿음으로 각자에게 특유하고 선명한 원리와 방법을 갖춰야 하는 건축가의 의무를 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예와 같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현실에 합리적임을 나름의 논리로써 선명하게 주장할 때만 건축에 대한 사유를 살찌우는 생산적 논쟁이 시작되며, 그 '합리성'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 우리의 자리에서 또다시 새롭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Architectural Design

A Case-study of Two Professor-Architects in Italy

Kim, Kyong Soo  
(Myong J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e problem of separation between the teaching and the practice of architectural design in Korean universities has activated this study. Comparison between two professor-architects in Italy through their various activities has been made during the period of 1991-1992 in the Istituto Universitario di Architettura di Venezia. The names of the two professor-architects are Aldo Rossi and Franco Mancuso.

Their teaching activities in their architectural design class with their assistants, their background and formation of architectural theory, and two realized (and prized) works of them have been compar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or oppositions) in their world-view and their attitudes towards architecture, the one as an empiricist, the other as a rationalist. But the most impressive observation must be the fact that all of them were coherent in their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although this raises another question about the 'rationality' in architecture.